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무현 후보 인사말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넓은 정치 대 새 정치'〉

여러분!

언제 봐어도 반갑지만 오늘 아침 기쁨에 넘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손을 맞잡는 기쁨이 특별합니다. 저는 이번 단일화의 성공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화자찬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지만 분명히 새로운 역사입니다. 모두들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자부심도 느낍니다. 저 혼자 힘도 아니고 여러분만의 힘도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힘입니다.

단일화의 기쁨을 국민 여러분께 돌립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엄숙한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 순간도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정몽준 후보와 손잡고, 반드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동북아 시대, 중산층과 서민이 주인 되는 시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갑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손잡고 함께 나갑시다. 단일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갈등은 그 시기와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다 같이 손잡고 성공을 이루어 나갑시다.

무엇보다 단일화의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함께 하면서 승복의 약속을 지킨 정몽준 후보의 자세에 거듭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 훌륭한 자세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19일! 국민의 희망, 여러분의 소망을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개혁입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매몰되어 중대한 국사를 놓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또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문제가 12월 3일날 결정됩니다. 이 일을 당에 계신 분들께서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를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끌어가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